

최근 종단 현안과 관련한 당부말씀

우리 종단은 최근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의 은신과 관련하여 부처님의 무연자비(無緣慈悲) 정신과 한국불교 전통의 화쟁 정신에 입각해 슬기롭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부처님 가르침이 살아 숨 쉬는 전법 도량인 조계사에 대한 공권력 투입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교역직, 일반직 종무원 모두는 우리 종단의 사회적 역할과 요구, 그리고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가를 확인했으며, 이에 비해 우리의 역량이 많이 부족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또한 이번 사안에 임하는 각자의 모습에 있어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정보기관과 언론을 대응하는 자세와 내용, 공권력 투입이 임박한 상황에서 일부 소임자들의 안일한 모습 등은 종도들과 사회에 봉사하겠다는 사명을 잘 수행하고 있는 것인지 성찰하고 점검해야 할 문제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중앙종무기관은 사찰과 스님, 신도, 나아가 사회를 위해 기도하고 복무하는 조직입니다. 불기2559년에 대한 종무평가와 교역직과 일반직 인사가 이루어질 시점입니다. 이번 현안을 거울로 삼아 다사다난했던 2015년을 종무원들의 단합된 힘으로 잘 회향합시다. 사회와 종도들이 여망하는 한국불교의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실력을 키워나갑시다. 황벽선사의 선시와 같이 뼈에 사무치는 추위를 견뎌 짙은 매화 향기를 피워내기를 기원합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정진합시다.

불기2559(2016)년 12월 16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